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뭇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뭇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뭇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뭇

한눈에 보는 기록

뭇
'무엇'의 준말.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뭇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무엇’의 준말.

🕒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 수록 용례

3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뭣'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무엇’의 준말.



뭣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뭣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뭣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뭣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뭣



뭣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옛 표기와 변화

‘뫼’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뫼’는 대명사 ‘무엇’에서 제1음절의 모음 ‘ㅜ’가 반모음 [w]로 바뀐 것이다.

문헌 속의 뫼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뫼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뫼

 출처 1923 동아일보 7월 22일 5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앞뒤 집에 나의 동모 뫼을 하고 노르시노.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7 동아일보 1월 12일 8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뫼?』 흥계를 내려드되는 강은 주간을 치어다보았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동아일보 2월 14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사람다운 건 뫼이 사람다운 게야….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뒹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뒹의 뜻과 역사